

朝鮮王朝時代의 地圖冊

서울대 李 燦

朝鮮時代의 地圖冊과 地理誌의 편찬과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朝鮮時代의 地圖冊은 英祖(1726—1776) 이후에 활발해진 각종 地理誌, 특히 邑誌의 편찬 사업과 같이 道別圖와 府郡縣圖의 작성이 활발해졌고 이것을 합쳐 만든 地圖冊이 印本 또는 筆寫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時期의 지도책은 우리나라의 道別分圖와 府郡縣圖를 道別로 정리한 大型地圖冊과 일반에 비교적 널리 普及되었던 「輿地圖」 또는 「天下地圖」라고 冊名이 붙은 간략한 지도책, 그리고 大型地圖를 접어서 만든 折疊地圖冊(folio atlas)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道別全圖와 府郡縣圖를 합친 道別地圖冊은 英祖 33年에서 41年(1757—1765) 사이에 작성된 輿地圖書의 作成年代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道別地圖冊은 輿地圖書에서와 같이 各 府郡縣圖는 같은 筆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 縮尺도 紙面의 크기에 맞도록 그린 輿地圖帖과 座標를 利用해서 同一縮尺으로 그린 地圖冊이 있다. 便宜上 前者를 府郡縣繪圖冊, 後者를 座標 府郡縣圖冊이라고 부르기 위하여 한다. 前者는 邑誌의 附圖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일종의 그림지도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山系와 水系가 잘 표현되었고 交通路, 驛路, 烽燧, 嶺, 山城, 邑治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邑治와 山城은 축척에 관계없이 자세히 그려져 있다. 輿地圖書와 같이 同時의인 各邑地圖를 全道 또는 全國의으로 모아 놓았다는 점에서 史料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各邑地圖 외에 道別地圖가 添附되어 있다. 道別地圖도 縮尺이 동일하지 않으며 紙形에 맞도록 그려져 있다. 後者, 卽, 座標府郡縣圖冊은 約 4cm의 座標(30里間隔)를 이용한 同一縮尺의 邑地圖와 小縮尺의 道別全圖가 포함되어 있다. 이 地圖는 鄭尙驥(1678—1752)의 東國地圖에 나타난 百里尺(100리를 나타낸 주린자)의 개념을 도입한 地圖冊이다. 위에서 말한 府郡縣繪圖冊과는 달리 各邑이 모두 同一縮尺으로 그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地圖 안에서 어떤 山城이나 邑治를 과장해서 표현하지 않고 記號로 표시하는 데 그쳤다. 府郡縣繪圖冊에 비교하면 거리, 방위는 정확하나 역사적인 사실 등을 地圖 안에 자세히 기록하는 점에서는 座標 府郡縣圖가 府郡縣繪圖에 뒤진다. 座標 府郡縣圖에는 鄭尙驥의 八道分圖를 小縮尺으로 축소하여 종래의 道別圖를 대신하고 있다. 축척을 같이 하기 위해서 咸鏡道를 北道와 南道로 나누어서 싣고 있는 것은 鄭尙驥의 東國地圖 원도와 같다. 府郡縣圖冊이 輿地圖書의 附圖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데 비하면 座標 府郡縣圖는 附圖의 성격보다도 독립된 地圖冊의 성격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國立中央圖書館에 소장된 輿地圖帖은 1面の 크기가 36.5×33.7cm 이고 藏書閣에 소장되었던 座標府郡縣圖는 48×34.3cm의 크기이다. 이외에 韓紙全面 크기로 그린 大縮尺 郡縣圖를 折疊하여 道別로 製冊된 地圖冊도 奎藏閣과 國立中央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折疊地圖冊은 1里方眼을 사용한 大縮尺地圖가 大部分이다. 이 地圖는 당시 議政府 또는 備邊司 등지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위에서言及한 府郡縣繪圖 및 座標 府郡縣圖와는 그 製作過程에서 서로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위에서 고찰한 大型地圖冊은 정부기관에서 제작 사용했던 것이고 일반 민간에 보급되었던 것은 아니다. 大型地圖冊 作成과 거의 같은 시기에 좀더 간략한 우리 國土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고 또 외국에 대한 호기심도 증가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慾求에서 널리 보급되게 된 地圖冊이 輿地圖, 또

는 天下地圖라고 불리우는 地圖冊이다. 이 地圖冊은 印本과 寫本 등 그 量과 종류의 多様な 점, 그리고 당시의 韓國人의 世界觀을 엿볼 수 있는 「天下圖」 즉 세계지도를 包含하고 있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어 왔다. 이 地圖冊을 여기서는 「輿地圖冊」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輿地圖冊은 그 內容構成을 板本을 기준으로 하면, ① 天下圖, 中國圖, 東國八道大總圖, 八道分圖, 日本國圖, 琉球國圖의 13圖로 구성된 것, ② 위 지도에서 日本國圖, 琉球國圖, 東國八道總圖(朝鮮全圖)를 제외한 10圖로 된 것, ③그리고 八道分圖와 驛, 鎭, 管, 堡, 山城, 民戶, 田結 등 地誌 자료를 包含한 小型折帖(10.3×5.5cm) 등 셋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나 筆寫本은 그 內容이 板本보다 훨씬 多様하다. 筆寫本에서는 板本の 內容에 遼薊關防地圖, 燕都, 盛京都, 都城圖, 松京都, 天地圖(天文圖와 地圖를 混合한 圓形地圖) 등이 編者의 필요에 따라 添加된 것과, 鄭尙驥의 八道地圖를 小縮尺으로 만든 八道地圖冊이 있다.

이 지도책들은 거의 대부분이 편자와 刊記가 없어서 그 제작연대를 추정하는 데는 地名의 變遷, 府·郡·縣의 變動, 戶口와 田結數 등에 의한 추정을 할 수 밖에 없다. 主要 圖書館, 博物館 所藏本과 筆者 所藏本을 바탕으로 그 年代를 구분하면 17—18세기와 18—19세기의 것으로 大別된다. 17—18세기의 것으로는 孝宗 3年~肅宗 9年(1652—1683) 사이에 刊行된 것으로 추정되는 木版本과 英祖時代에 해당되는 版本이 있다. 英祖時代의 輿地圖冊은 英祖 43年(1767) 以前의 것과 同 43年에서 同 52年(1776) 사이에 作成된 것이 있다. 위의 3種의 版本은 內容은 유사하나 同一版本이 아닌 것도 있어서 실제로는 더 多様な 內容을 갖고 있다. 17—18세기의 版本에는 모두 편자와 刊記가 없다. 그러나 英祖年間에 刊行된 版本中에 天下圖 欄外에 「康熙二十三年 甲子謹製」라고 陰刻으로 追加한 것이 있다. 이 지도책은 地名 등으로 보면 1767—1776년 사이로 추정되나 위의 追加記錄으로 보면 1684年(肅宗 10年)에 해당된다. 英祖年間의 版本으로 추정되는 地圖에 위에서 言及한 小型 冊대용 八道地圖, 또는 袖珍八道地圖라고 부르는 매우 작은 地圖帖이 있다. 16折의 折帖으로 된 이 地圖帖은 비교적 많이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널리 이용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17—18세기의 筆寫本에서도 版本과 같이 孝宗~肅宗年間의 것과 英祖年間의 것을 찾아볼 수 있다. 筆者所藏의 筆寫本에는 孝宗 3年(1652)에서 肅宗 9年(1683) 사이에 作成되었다고 추정되는 輿地圖冊이 있다. 이 地圖冊에는 같은 시기의 版本과 같은 內容의 地圖가 包含되어 있다. 현재 國立中央圖書館 소장으로 되어 있는 6冊으로 된 天下地圖(輿地圖)는 보편적인 天下地圖에 遼薊圖, 松都, 都城圖(서울), 道別全圖와 郡縣圖 등을 包含하고 있어서 위에서 고찰한 大型輿地圖帖과 일반 天下地圖冊을 합친 것으로 그 年代는 함경도의 茂山이 신실된 肅宗 10年(1684)에서 安陰, 山陰이 安義, 山淸으로 改名되기 이전 즉 英祖 43年(1767)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걸친 版本 輿地圖冊에는 4類型이 있다. 첫째는 輿地圖序에 錦湖散人 愛景齋라고 편자를 밝히고 屠維作噩 즉 己酉라고 刊記를 적고 있다. 地圖內의 地名과 紙質 등으로 보아 1849年(己酉)으로 추측되는 것으로 版本으로는 가장 年代가 늦은 것으로 추측되며 다른 地圖冊이 대부분 蝴蝶裝인데 이 지도책은 土紅絲綴 장정이다. 두번째 地圖는 현대식 正射圖法의 경위선 조직을 갖는 在來式 天下圖를 포함하고 있는 지도책이며 1700年代 후기에서 1800年代 初期의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지도는 浮雲墨客板寫라고 제작자를 밝히고 있는 版本 輿地圖冊으로 가장 큰 지도책이다(57×36cm). 沿海에 風船 또는 기타 경치를 陰刻으로 나타냈고 山地에도 장식조각을 하는 등 地圖이면서 版畫의인 가치를 겸비하고 있다. 네째 유형은 순 한글로 된 天下地圖이다. 내용은 일반적인 13圖로 구성되어 있으며 開城(開城), 果川(果川), 龍仁(龍仁), 廣州(廣州) 등의 옛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지도의 유형은 흔하지 않으나 현재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 시기의 筆寫本으로는 道光 19年(1839)에 새로 만든 것으로 되어 있는 筆者가 수집한 地圖冊에는 松都圖, 松京幅員圖, 八道分圖, 漢城府圖, 朝鮮八道總圖, 日本國, 琉球國, 中國, 天下圖, 盛京圖,

天地圖(天文圖 中央에 현재의 東部 아시아를 그린 地圖)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各地圖의 外郭에 關聯되는 歷史의 事實, 察訪, 僉使, 萬戶, 鎭管, 田結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현존하는 輿地圖冊은 孝宗~肅宗年代 즉 1600年代 이전으로 소급되는 것은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은 18세기 후반 이후의 것이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도 널리 사용되었다.

輿地圖冊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八道總圖와 道別分圖이다. 우리나라 全圖인 八道總圖와 道別로 2面大 크기로 된 道別圖는 東國輿地勝覽의 八道總圖와 道別圖의 內容과 거의 같으나 驛, 兵營, 水營 등이 追加되었고 서울에서의 거리를 표시한 日程, 府·郡·縣의 표시 등이 되어 있다. 그러나 輿地勝覽에서는 중요시하지 않은 水營, 兵營, 民戶, 田結 등 邑誌의 事例에 해당하는 부분을 量的으로 併記하고 있다. 즉 勝覽의 內容에 社會·經濟的인 측면, 특히 量的인 表示가 결여된 것을 보충하기 위한 道別 綜合邑誌의 意圖와도 일치되는 점이다. 특히 筆寫本에서는 地誌와 地圖의 兩面 성격을 모두 갖추려는 편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國內의 地誌를 補完하는 內容뿐만 아니라 中國, 日本, 琉球에 대한 地圖, 그리고 世界地圖인 天下圖를 같이 包含하고 있는 것은 朝鮮時代 후기에 들어서서 空間的인 視野가 넓어졌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中國地圖를 제외하면 그 내용이 모두 소략하고 充分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당시 韓國人이 中國 中心의 意識構造를 가지고 있었고 日本과 琉球에 대해서는 關心이 相對的으로 적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輿地圖冊에서 특기할 것은 「天下圖」라고 불리우는 세계지도이다. 위에서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天下圖에 대해서는 여러 學者들의 연구가 있기는 하나 아직도 그 起源과 年代에 대해서는 見解의 一致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圖形인 天下圖는 世界를 圓形 또는 圓盤으로 보는 수메리아(Sumeria)인의 泥土板 圓形世界地圖, 佛教的인 世界觀 등과 그 思想的인 脈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天下圖의 中心大陸, 稗海, 瀛海, 環大陸의 개념은 분명히 中國의 春秋戰國 時代의 鄒衍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地圖化하고 山海經의 內容과 現實의 事實을 종합하여 地圖化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記錄이 없다. 그러나 이 天下圖는 우리나라의 天下地圖冊에서만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그 종류가 多樣하고 오랫동안 韓國人의 世界地圖로 愛用되었다는 점에서 韓國人의 世界觀을 나타낸 독특한 地圖라는데 異議는 없을 것이다.